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la@gmail.com

THURSDAY, April 9, 2015 Vol. 478

동성결혼 인정에 PCUSA 한인교회들은? 선한목자장로교회 교단 탈퇴 선언

PCUSA가 동성결혼을 교단 차원에서 인정한 이후, 미국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PCUSA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성경적·전통적·보수적 결혼 정의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한 일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PCUSA가 단순히 동성결혼을 북인한다든지 동성애자 성직자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성경에 명시된 결혼의 개념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점에서, 반동성애 진영은 경악했다.

친동성애 진영에서 볼 때에도 그 동안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LCA)·연합그리스도교회(UCC)·미국성공회(TEC) 등 여러 교단이 동성결혼을 인정했지만,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마저 이를 뒤따랐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진전이다. 2013년 당시 연방대법원도 양성결혼자에게만 부여되는 연방정부의 혜택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결혼보호법(DOMA)를 폐지하기 했지만, 김히 결혼의 정의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6월, 동성결혼의 전국화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PCUSA의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면서 한인교회들의 각성을 요청했다. 한인교회들이 속한 3개 한미노회들 가운데 동부한미노회도 “우리 노회 전체는 동성결혼을 성서적인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산하 교회에서는 동성결혼 예배와 주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한인교회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그나마 다행인 측면도 있다. 목사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만 동성결혼을 집례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일이라도 목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신앙 양심을 존중한다. 즉, 누구도 동성결혼 집례를 강요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 지역 한인 목회자들은 최근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 모여 이 점을 재확인하고, 교회가 속한 노회가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한미노회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교단이 위기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한인들의 현장 목회에는 입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 예배에서 설교한 한기홍 목사는 “예수 부활은 율법의 속박, 악의 권세, 인생의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구하고 자유케 하는 승리”라면서



OC교협이 주최한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절 새벽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거행됐다. 이 예배에는 약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예수 부활은 율법·악·불행에 대한 승리”

남가주 11개 지역에서도 각각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절인 4월 5일 새벽, 남가주 11개 지역에서 각 지역 교계 연합단체 주최로 일제히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중 오렌지카운티(OC)는 OC 교협을 비롯해 목사회, 기독교평신도연합회, 원로목사회, 원로성직자회, 여성목사회, 장로협의회가 공동으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새벽 5시 15분에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 설교한 한기홍 목사는 “예수 부활은 율법의 속박, 악의 권세, 인생의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구하고 자유케 하는 승리”라면서

“OC 지역 모든 교회가 부활의 복음으로 종만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예배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 다음 세대의 교회 정착과 부흥, 한국의 정치 안정과 평화통일, 타민족 교회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OC교협은 이번 예배를 EM, 타민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기획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관한 기도는 EM 목사인 제프 혼 목사가, 타민족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는 과테말라인들이 출석

하는 브니엘교회의 이반 구즈만 목사가 맡아 의미가 컸다. 브니엘교회의 중창단도 구즈만 목사와 함께 참석해 현금찬송을 불렀다.

예배에서는 김기동 목사(교협회장)가 사회, 곽재필 목사(목사회장)가 기도, 윤우경 집사(평연회장)가 성경봉독, 은혜한인교회 헬렐루야 성가대가 찬양, 이법식 장로(교협 후원이사장)가 현금기도, 박재만 목사(교협 서기)가 광고, 노장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축도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며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합창했다.

OC교협은 이 예배의 현금 전액을 타민족 불우이웃들에게 사랑의 라면을 전달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LA 지역은 풍성한교회에서, 동부 지역은 아름다운교회에서, 중부 지역은 감사한인교회에서, 사우스베이 지역은 남가주살롬교회에서, 샌페난도밸리 지역은 은혜와평강교회에서,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 온누리교회에서, 샌버나디노 지역은 창대교회에서, 벤추라카운티 지역은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샌디에고 지역은 팔로마한인교회와 샌디에고사랑의교회에서 각각 예배를 드렸다. <2면에 관련 기사>



LA 동부지역은 아름다운교회에서 동부교역자협의회 주관으로 연합예배를 드렸다.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사회로 송재호 목사(하늘샘교회)가 기도하고 전병주 목사(나성한미교회)가 “부활·새로운 세상, 새로운 존재”라는 설교를 전했다. 최준우 목사(엠마오장로교회)가 봉헌기도하고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광고하고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가 축도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차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각 지역 연합예배로 부활 기념

사우스베이 · 인랜드 · 중부 · 밸리 등



사우스베이교협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500여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살롬교회에서 드렸다. 이황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가 사회, 김병용 목사(성서장로교회)가 기도하고 김현수 목사(토렌스선한목자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이상진 목사(토렌스선한목자교회), 김관중 목사(벧엘장로교회), 윤운 목사(팔로스버디스 소망교회) 등이 사우스베이 복음화와 미국과 한국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김준식 목사(살롬교회)가 축도했다.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ANC온누리교회에서 인랜드교역자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박성호 목사(인랜드ANC온누리교회)의 사회로 강승배 목사(남가주는파교회)가 기도하고 이희철 목사(갓스월연합교회)가 "그가 살아나셨다"란 설교를 전했다. 이후 강문수 목사(에덴선교교회)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인랜드 지역 교회와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한 후, 손상현 목사(두란노교회)가 현금기도하고 박종길 목사(인랜드영락교회)가 축도했다.



중부교협의회도 감사한인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심명구 목사(한민감사교회) 사회로 방상용 목사(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기도, 김종근 목사(새희망선교교회) 성경봉독, 석태운 목사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이란 설교, 김영대, 용장영(큰사랑장로교회), 현에스더 목사 특별 기도, 전동은 목사 현금기도, 최국현 목사(은혜와진리교회) 광고, 오병의 목사(건강한교회) 축도로 예배가 진행됐다.



샌프란도밸리 지역은 밸리교협 주관으로 예배했다. 곽덕근 목사(은혜와 평강교회)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남가주교협 · 목사회 · 여성목사회 부활절 연합예배 드려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남가주교협 회장 최혁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지역 교회 연합 2015 부활절 예배가 4월 5일(부활주일) 오전 5시 30분 풍성한 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성료됐다.

이날 연합예배는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회장 최혁 목사)를 비롯,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남가주한인 여성목사회(회장 강지원 목사) 연합으로 드려졌다.

남가주교협 총무 이현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현재 최혁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주안예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백지영 목사의 기도, 주안예교회 연합성가대의 특송, 심진구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의 성경봉독, 류당열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류당열 목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26)라는 주제의 말씀선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

셨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절을 맞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기 바란다"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으로 사랑 권세를 이기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을 본받자"고 말했다.

이어서 강지원 목사가 '교회의 영적 재건과 부흥을 위해', 김영배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동포사회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특별기도 후에는 남가주장로성 가단(단장 이홍주 장로) 중장단의 특별찬양, 김혜진 성도(주안예교회)의 봉헌 및 특송, 이방걸 장로(남가주교협 이사장)의 봉헌기도, 사회자의 광고, 남가주교협 최혁 목사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끝으로 찬송가 155장을 다함께 부른 후 최학량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회장)의 축도로 '2015 부활절 연합예배'가 은혜롭게 성료됐다.

이영인 기자

선한목자장로교회 공동의회 열고 교단 탈퇴

▶ 1면으로부터 계속 PCUSA 소속 교회들의 재산은 모두 교단에 신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은 노회가 갖고 있다. 따라서 "교단 탈퇴 시 불펜 한 자루도 갖고 나올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교단 탈퇴를 못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각 노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은혜로운 결별 정책'(Gracious Dismissal Policy), '은혜로운 분리 규정'(Policy for Gracious Separation) 내지는 '원만한 이전 정책'(Peaceful Dismissal) 등을 만들어, "노회와 공식적으로 입장장을 조율한 후, 공동의회를 열어 성도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으며, 노회에 선교분담금을 지불한다면" 재산을 보유한 채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긴 했다.

2014년 3월 노회 합의 하에 교단 탈퇴 결정

그러나 선한목자장로교회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선한목자장로교회도 2014년 3월 23일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열고 투표를 해 성도 91%의 찬성(총 817표 중 찬성 738, 반대 74, 무효 5)으로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교단을 탈퇴하되 재산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63만5천 달러의 선교분담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했기에 원래대로라면 선한목자장로교회는 이미 교단 탈퇴가 완료 되었어야 정상이다.

탈퇴 반대 성도들로 인해 갈등
2015년 3월 다시 공동의회

그런데 선한목자장로교회 내 70여 명의 교인들은 공동의회 결과에 불복하고 교단 잔류를 계속 주장하면서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노회는 이것을 교회 갈등이라 판단, 행정전권위원회를

김준형 기자

새 빛 한 의 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턱선을 옮겨 짚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제3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응모주제 1) 나는 누구인가?

효사랑 글짓기, 효사랑 그림

응모대상 초등부(1학년~5학년), 중고등부(6학년~8학년), 고등부(9학년~12학년)
장애우 청소년(학년과 나이제한 없는 청소년)

응모주제 2) 효사랑 글짓기(한글, 영문 모두 가능함) – 나는 누구인가?
효사랑 그림 – 나는 누구인가?

원고분량 3) 효사랑 글짓기(Letter size 3pages 이상, 글자크기 12pt)
효사랑 그림(크레파스, 수채물감, 드로잉, Oil Painting, 등…)

도화지규격 4) 초등부(1st~5th) - 14"X17"(S)
중고등부(6th~12th) - 18"X24"(L)

* 작품 제출시 작품 뒷면에 e-mail Address, Full Name, School Name, Class, Home Address, Phone No. 를 꼭 적을 것.

접수기간 5) 2015년 4월 15일 ~ 5월 20일

시상일시 6) 2015년 6월 13일(토) 오전 10시
CTS 어린이 앱창단과 율동 찬양팀(Seed of Worship)의 공연 및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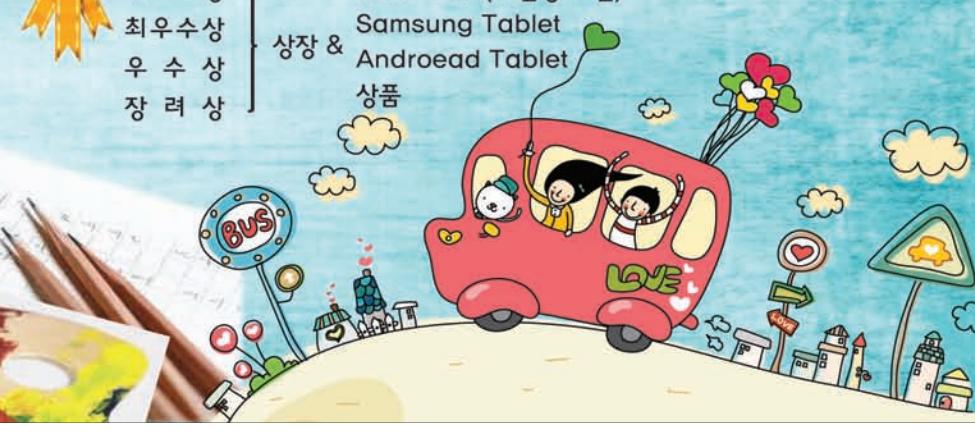
작품제출 및 문의 7) 효사랑 선교회 Tel. 714.670.8004 Cell. 562.833.5520
E-mail. hyosarangus@gmail.com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제출방법 8) 우편, 방문, E-mail(글짓기에 한함)

“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가족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

효사랑 글짓기, 그림 시상 *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제공

대상 Notebook (최신형 모델)
최우수상 Samsung Tablet
우수상 Androead Tablet
장려상 상품



동성결혼 인정은 하나님 말씀 부인한 사건

前 PCUSA 한인총회장 고태형 목사 인터뷰

선한목자장로교회를 담임하는 고태형 목사는 PCUSA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장로회신학대학원(한국)을 거쳐,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유니온장로교신학교(구 Union-PSCE, PCUSA 소속)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 교단에서 20년 가까이 목회했고 한인총회장까지 역임했다. 교단 내 한인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인터뷰에서 고 목사는 “이 문제는 절대로 재산권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 이것은 신앙 양심의 문제이며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만약 교단 탈퇴로 인해 재산권을 다상실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다시 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룰랜드하이츠에 위치한 이 교회의 자산은 약 630만 달러로 추산된다. 다음은 고 목사와의 일문일답.

-동성결혼 반대를 이유로 교단 탈퇴를 선언했는데.

교단이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기초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성결혼은 그 열매 중 하나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동성결혼은 승인은커녕 토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한인 목회자들은 이민 목회에 바빠서 교단 내부의 일을 잘 모를 수 있다. 나도 한인총회장을 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다. 우리는 PCUSA가 극보수주의부터 자유주

의까지 다양한 신학적 스펙트럼을 다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주의가 신앙을 다 잡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 안에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제 다 떠나야 한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탈퇴를 준비해야 한다. 시애틀 명성교회에 시무하던 김범기 목사는 교회 이름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개척을 선택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교단이 동성결혼을 인정해도 노회가 우산이 되어 준다고 한다. 그리고 노회까지 인정해도 목회자의 신앙 양심을 존중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개교회 목회에는 영향이 없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지 않다.’ PCUSA는 개교회의 불완전성에 의거해 연결주의(Connectionalism)를 지향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노회, 노회는 대회, 대회는 총회의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다. 위에서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장로교회의 정치 시스템이다. 그런 장로교회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큰 모순이다. 예를 들어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침례교회라면 교단이 뭐라고 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장로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신학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단적으로, 목사는 시무하는 교회

가 아니라 노회 소속이다. 노회에서 목사로 위임해 주어야 정식으로 시무할 수 있다. 정말 문제가 안 생길까? 노회 모임을 하게 되면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동성애자 목사가 성찬식을 인도할 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한인총회나 한미노회들은 한인들이 교단을 개혁하자고 한다.

이미 동성애자 안수 문제가 나올 때부터 했던 말이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뤄졌는가? 총회에 172개 노회가 있는데 한미노회가 행사할 수 있는 몇 표 정도로 바꿀 수 있을까? 보수적 미국교회처럼 시위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 안 된다.’ 게다가 30년이나 20년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너무 늦었다. 지난 30년 동안 교단을 잠식해온 자유주의를 막기는 늦었다. 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인총회장을 역임하며 교단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 PCUSA 내의 자유주의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게 됐다. 2011년 프레스비테리안 패널(The Presbyterian Panel)의 조사에 따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란 질문에 목사의 45%가 동의하지 않았고, 41%만이 동의했다. 그 중에서도 확실히 동의한다는 답변은 불과 2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정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목사가 20% 수준이다.



고태형 목사는 “동성결혼 인정은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개교회 영향 없다는 말은 신학적, 현실적 모순

한인들이 교단 개혁? 이미 늦어

-재산 문제 때문에 교단 탈퇴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위의 문제들에 비하면 오히려 재산 문제는 간단하다. 자산과 건물을 보유한 큰 교회는 잃는 것이 많을 수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사실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된다. 다만 목회자가 앞장서서 교단 탈퇴를 추진하다가 반대하는 성도가 많으면, 사역지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며 교회가 친반으로 양분될 수도 있다. 지금 목회 자체가 힘든데 그 고생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들은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선교나 열심히 하면 괜찮다’ 할 때가 아니다.

-교단을 떠나려는 교회에 조언한다면. 먼저는 성도들, 당회와의 의견 조

율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한인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90% 이상이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은 노회의 GDP 규정(은혜로운 결별 정책)을 따라야 한다. 노회 지도자와 상의하고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노회 자체의 GDP가 없다면 노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 물론 따르지 않고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미 전역에서 몇 개의 한인교회가 탈퇴를 준비 중인가?

전체 1만여 PCUSA 교회 중 한인 교회가 420개 정도인데, 내가 알기론 현재 한 6개 교회가 탈퇴를 추진 중이며 이들 중에는 큰 교회들도 있다.

김준형 기자



선한목자장로교회의 2014년 3월 23일 공동의회 모습. 당시 교회가 속한 샌가브리엘노회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투표 끝에 교단 탈퇴를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분야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장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풀러턴지점: 170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평일무휴·주말·선택연방일)
T.213.453.6624 (아침·점심·저녁)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240g 소비자가격 \$185	3개 구입시 \$370	2개 구입시 \$320	4개 구입시 \$450
100g 소비자가격 \$90	2개 구입시 \$150	3개 구입시 \$180	555 \$555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혼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 여승훈 목사의 북상칼럼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교회



여승훈 목사
복음주의 칼럼니스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관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일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그 곳은 머리부터 밑바닥 기초 까지 온통 유일한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8).

이 말씀에서 먼저 “내 교회”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자. 아! 이 표현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가?

“내 교회”的 의미를 풀어 본다면 교회의 주인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룰을 어긴다면 교회는 교

회로서의 기능을 잃어 버림과 동시에 무너짐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둘 때 강단의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인지하게 된다. 만약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반복으로 제시해 주지 못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세월이 지남과 동시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받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람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약 8년전, 당시 섬기고 있었던 텍사스 휴스頓의 한 교회에서 아주 소박하지만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비가 오기만 하면 교회 성가대실에 물이 들어와서 바닥 카펫을 적시곤 했었다. 빗물이 성가대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가대실 바깥 벽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화단을 없애 버리고 시멘트 공사로 막아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빗물이 들어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빗물은 여전히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후 몇 가지 다른 방법을 동원하며 추가 공사를 시도했지만, 비가 스며드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장로님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살살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붕 코너에 작은 틈새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거기로 들어온 빗물이 건물 아래로 흘러서 성가대실 바닥을 젖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으로 모시는 이 일을 제쳐두고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한 마디를 새겨 보았으면 좋겠다. “머리를 불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골로새서 2:19).

여기서 기가 막힌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

도 바울은 먼저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그 진단이 무엇인가? “머리를 불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교회의 머리를 의미한다. 즉,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의 근원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불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당시 초대 교회들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들지 않았을까? 문제는 그리스도를 적당히 불들었지 절대적으로 불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 교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의 전부가 되고 삶의 전부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두들 자신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다. 현대 교회가 거듭 실패하는 배경의 근원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자꾸 영뚱한 것만 다루다 보니 수고만 할 뿐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 간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상처와 후회만 가슴에 남게 될 뿐이다. 상처는 치유하면 되고 후회는 돌이키면 된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인생의 세월은 어찌 할 방도가 없다.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

언제 어느 때에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줄기차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선포할 때, 사람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유혹의 몇에 걸려들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불들어 주고 겸손케 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스스로 겸손해 보이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겸손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겸손으로 한마디로 냄새가 난다. 그러나 성령께서 겸손케 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 겸손과는 다른 것이다.

성령께서 겸손케 해 주시는 겸손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굽복 당하는 데에서 나오는 매우 자연스러운 겸손이 된다.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이러한 겸손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

찬양의 자세부터 실력 향상까지…

찬양 대원을 찾아가는 열린 세미나

성가대나 찬양팀이 예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들을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전현미 지휘자가 제1회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열린 세미나”를 연다. 성가대원, 합창단원, 찬양팀 등 찬양과 관련된 봉사를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찬양대 직분의 영적 자세, 효과적인 찬양 연습, 복식 호흡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현재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총무인 전현미 지휘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친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풍금으로 반주를 시작해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 왔다. UCLA에서 작곡, UCLA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공부했고 대흥장



전현미 지휘자

로교회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싸우스 베이여성합창단에서 지휘했다. 지난 2013년 베들레헴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국제찬양제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에버래스팅 합창단의 지휘도 맡은 바 있다.

전 지휘자는 “세미나에 참석한 찬양대원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작은 불씨가 되어 남가주 교회들에 성령의 불이 다시 일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오는 4월 12일 주일 오후 5시 성화장로교회(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247)에서 열린다. 문의) 310-381-9835

CGST 이민목회자 위한 연장 교육 실시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이 한인 이민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현대 목회에 필요한 재교육을 위해 제1차 이민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6월과 1월 두 차례 각각 2주 간씩 열리게 되며 오는 6월 강좌는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총 5과목을 이수하며 각 과목당 4회를 수업하고 수강료는 2주 수강에 500 달러다. 2주 수강을 마치면 본교의 수료증이 발급돼 목회학 박사 과정으로 진학할 시 학점으로 반영된다. 이번에는 현대교회의 목회 사역과 성경신학(염광렬 박사), 비교종교학: 기독교를 위협하는 타종교 어떻



교수 김용철 박사

게 대처할 것인가?(김용준 박사), 이민교회의 목회리더십(이광진 박사), 기독교 역사관의 종말론적 이해(최희규 박사), 갈등사역: 교회분쟁과 갈등 해결 및 대처 방법(김용철 박사) 등의 강의가 개설됐다. 또 정신질환의 이해와 예방 및 회복의 길을 주제로 한 특강도 한 차례 있다. 모집 정원은 20명이며 6월 1일 마감된다. 수업장소는 본교 강의실(11277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3)이다. 문의) 김용철 박사 714-636-1722 문소현 기자

CEF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CEF)의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올해는 “나의 안에 거하라(요15:5)”는 주제 아래 남가주와 북가주, 필리핀과 지역, 토론토 지역, 워싱턴 지역 등에서 열린다. 남가주는 4월 11일 세계아가페에서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elcome to a better world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bizhub MarketPlace

자신과 세상의 변화는 새로운 심령으로

예배소서 4:17-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 예배소서 4: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찐대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1. 멸망을 재촉하는 허망한 유혹

매년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을 점검해 보며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 기준 따라 육적 욕구의 기대치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에 유념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치기준으로 보시는 영적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더 요긴하게 쓰임 받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별로 무관심인 것이 현대 교인들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같은 상태로 새해를 수없이 맞이한다 해도 그 새해가 그 같은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새롭게 더해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남들보다 더 먼저 보겠다고 동해안으로, 정동진으로 물려가기 때문에 버스 대궐은 물론 열차편까지 증설한다지만, 새해 아침의 태양을 지켜보며 갖가지 소원을 주문한다 해도 그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눈도, 귀도, 입도 없으니 간절한 내 모습을 봄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기막힌 내 사연을 들어주지도 못하고, 처절한 내 신세에 대한 한 마디 위로의 말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악령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계속 바뀌어가도 실패와 절망, 후회와 부끄러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엡 4:18-19).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2. 말씀과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 받게 되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됨

미국의 제 22, 24대 대통령 클리블랜드(Cleveland, Stephen Grover 1837-1908)는 친구와 같이 교회 앞을 지나다, 교회 계시판에 “죄의 삶은 사망이다”라는 제목을 보고 교회로 들어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계속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으로 가야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의 친구는 술집으로 가고, 클리블랜드만이 교회로 가서 그리스도인(Christian)이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의 신앙지도를 받으며 회개하여 거듭나고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님께 쓰임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영적인 생활로 성화되어 갔습니다.

미국인들과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기대 가운데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주역으로 사용하셨고, 그의 치적(治績)이 특출했기 때문에 제 24대까지 대통령직을 두 번이나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은 것입니다. 언젠가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신앙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선포되고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교회는 인생재생공장이라 했습니다.

한편, 클리블랜드가 교회로 들어가자는 간절한 제안을 거부하며 고집스레 술집으로 향했던 비뚤어진 친구는 주색으로 방탕하며 온갖 죄악을 일삼다가 중죄인으로 감옥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신문지상에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기사를 읽으며 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날 교회 계시판에서 “죄의 삶은 사망”이라고 적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교회 안, 곧 하나님께 들어가자고 강권했던 친구를 뿌리치고 술집을 찾아 사망의 길을 재촉하며 잘못 살아온 자신이 한없이 밉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3. 부단한 기도와 희생적 사랑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킴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찰스 콜슨(Charles Colson)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지각이 뛰어나고 투철한 판단력으로 장래가 촉망받는 인물이었으나, 도중 하차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기에 형무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친구 중 헤드필드, 휴즈, 퀴에라는 사람은 상원의원이었는데 매일같이 형무

소를 찾아 찰스와 면회하면서 신앙으로 위로 받으라고 권면했으나, 오기와 분통으로 굳어버린 찰스의 심정은 얼음장같이 더욱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헤드필드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그토록 잘나고 똑똑했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형무소 골방이 최적의 장소라 생각하며, 간절한 기도와 영적 신앙의 권면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찰스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찰스의 형기가 약 7개월 밖에 남지 않았을 때 친구 헤드필드는 찰스가 신앙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출감하면 안되겠다는 조급함에, 자기가 찰스 대신 옥살이를 치루겠다고 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헤드필드의 탄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찰스는 친구 헤드필드의 희생적 사랑에 얼음장같이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고, 찰스는 성경을 탐독하며 형목(刑牧)에게 신앙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침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찰스는 친구 헤드필드의 아가페(Agape)적 희생 어린 사랑에 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옥중의 동료들에게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모임을 주선하기도 했고, 기도회까지 주도하며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도도했던 사람이 자신을 밑바닥까지 낮추고 섬김의 본이 되어졌을 때, 많은 죄수들도 감동을 받아 회개하며 변화되었습니다.

는 모습에서 찰스는 가장 큰 가치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옥한 후 거듭남이란 책을 지어 교도소 선교회(Prison Fellowship)를 조직하여 죄수들에게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과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일로 우리 주님께 요긴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찰스를 알았던 사람들로부터 어린 양같이 순진하고 겸손해진 하나님의 사자(使者)로 우리에게 돌아왔다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템플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가 바뀌거나 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내 혼란과 세상 조건이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와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이끌리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먼저 변화 받지 못하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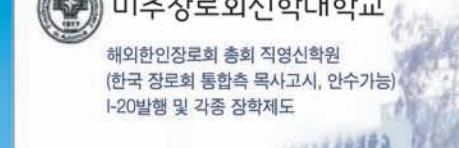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불잡고 성령님께 이끌리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교 설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7면 설교
크리스천 헬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 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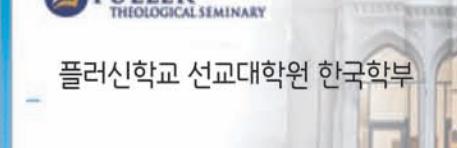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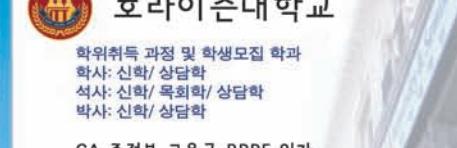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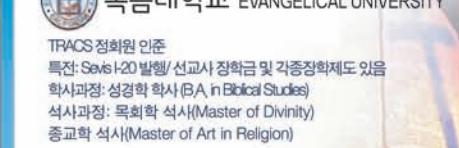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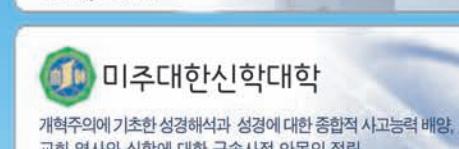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학제도 있음
학과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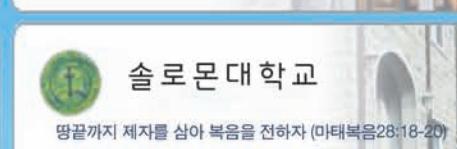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인식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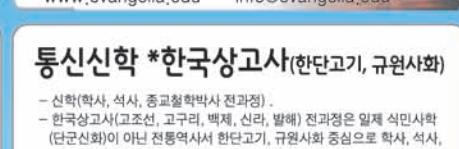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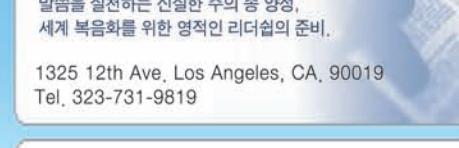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톤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과정).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과정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기,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래는 캘리포니아 E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eu@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김호 박사
총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갈
사명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

한국사이버대학 정규대학 학위취득

남가주 한인 목사회에서는 한국 21개 사이버대학과 MOU 체결을 하고 빠른 기간과 저렴한 학비로 한국의 정규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선교학

단기 선교사 자격증 취득
부설 단기 의료선교 훈련반 센터

단기 의료선교 도우미 사역, 양의사/한의사/간호사 준비
간호보조 및 견학생 교육, 의료선교 사역을 훈련 받습니다

의료선교, 선교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
침, 뜸, 부황, 수기치료, 지압, 추나요법을 단기간에 배워서
의료선교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상담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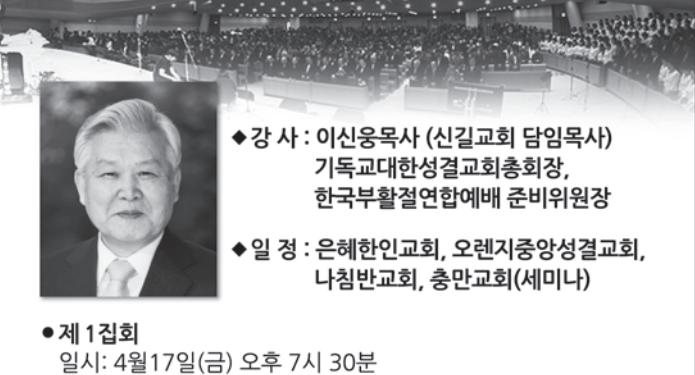
**213-381-7755
213-381-7575**



직접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921 Wilshire Blvd. #405-408, Los Angeles, CA 90010 (월서+그라머시)

오렌지카운티 영적대각성 전도집회

주제: 디아스포라(이민)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



◆ 강사 : 이신웅목사 (신길교회 담임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국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
◆ 일정 : 은혜한인교회, 오렌지중앙성결교회,
나침반교회, 충만교회(세미나)

● 제 1집회
일시: 4월 1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목사)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전화: 714-446-6200

● 제 2집회
일시: 4월 18일(토) 오후 7시
장소: 오렌지중앙성결교회 (담임 이경원목사)
주소: 13522 Golden West St., Westminster, CA 92683
전화: 714-891-2370

● 제 3집회
일시: 4월 19일(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업목사)
주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전화: 562-691-0691

● 교회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및 OC교협 월례회
강사: 이신웅목사
일시: 4월 17일(금) 오전 10시-12시 (점심식사가 마련됩니다)
장소: 충만교회(담임 김기동목사) 전화: 714-262-1428
주소: 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

주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김기동목사)

담임목사 청빙

창립 38년을 맞이한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Ventura County Korean Presbyterian Church)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속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

- 정규신학교 (M.Div학위이상)을 졸업하신분
- 3년이상 이민목회 경험이 있는 분(Full time)
-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 (사진포함)
2. 신앙고백과 목회계획서
3.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4. 목사안수증명서
5. 추천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분에 한하여 요청 2부(밀봉날인과 추천인연락처)와
6. 최근 6개월내 설교 2회

제출마감일 :

2015년 5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보내실 곳 :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821 Alta Vista pl. Camarillo, CA93012, djycorp@yahoo.com

기타 :

- 서류는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우편제출시 E-mail주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며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은 우리나라에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온 날이다. 당시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조선을 “소망없는 은둔의 땅”으로 알았다. 이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도 조선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기도문에 기록하고 있다. 조정의 마음도 알 수 없고, 남자들의 마음도 알 수 없고, 가마를 탄 여성들을 만나지도 못할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그런 절망과 어둠의 땅이기에 선교사는 더욱 복음을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불들어 달라고 기도하였고, 나이 들어 병으로 후송되어 미국에서 1916년 소천하기까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애를 썼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다. 정확하게 올해 4월 5일은 복음을 받아 들인지 130년이 되는 부활절이다.

이후 조선은 수많은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치욕, 극심한 전쟁을 겪는 수모 속에서, 교회의 부흥과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루는 정치발전뿐만 아니라, 케이팝(K-Pop)과 스포츠 등

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세계에 공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눈에 띄는 것은 130년 동안 이룬 교회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세계 최대 교회들 중 여럿이 한국 교회이며, 국어의 사용과 발전, 여권의 신장 및 교육과 병원의 설립, 국제적인 교류에 있어서 교회의 영향력은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더욱 이 분단 상황에서 조국이 복음을 다시 세계를 향하여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은 경이적이다.

2010년 고든콘웰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연구센터(CSGC)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 약 40만의 선교사가 있는데, 미국은 12만 7천명으로 1위,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

아에 이어 한국은 2만명으로 6위에 올라 있다. 인구 100만 명 선교사 파송 숫자는 3401명인 팔레스타인에 이어, 아일랜드, 몰타, 사모아의 뒤, 즉 한국은 1014명으로 5위를 유지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들어온 후 130년이 되어서 이제 적극적인 선교의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는 많은 산적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복리 현상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부활절 130주년을 맞이한 한국 교회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도의 윤리적 수준이 아니더라도 다음에서 지속적인 진보가 필요하다. 정직한 신자, 신용 있는 신자, 온유하고 착한 신자,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신자, 자신의 직업에 성실한 신자, 자녀를 잘 교육하는 신자, 그리고 선행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신자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어떤 형제가 있었다. 후에 성공해 부자가 된 형은 동생에게 멋진 자동차를 선물했다. 동생은 새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오던 길에 알고 지내던 동네 아이로부터 이런 인사를 받게 된다.

“아저씨 새 자동차 사셨네요?”

“아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형이 선물로 사주었어.”

“정말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하지마. 너도 장차 크면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날이 올거야.”

이 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아니예요. 저는 선물받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형님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커서 동생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형이 될 거예요.”

무엇을 부러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한다. 그런데 삶의 가치기준이 단순한 일상적인 문제일 때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좀더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일 때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 무쌍한 윤리적인, 법적인 기준마저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흔들리지 않고 참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장차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리를 소유 할 수 있을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예수만이 진리이신가? 예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역사 이래로 그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 생명을 보장한 자는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보장하셨다. 다시 말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보장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답이다.

오늘 해야 할 나의 목표는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비슷한 나이의 이민 1세들이 매달 한 번 씩 식당에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지나간다.

어느 날 재치 넘치는 정OO가 푸념을 했다. 자기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고 있다고. 그러자 누군가 “야, 너만 그러느냐? 나도 그렇다” 하자 모두가 천장이 떠나가도록 박장대소했다.

그 모임의 좌장격인 최OO 선생은 그 나름의 다른 경험을 털어놓았다. 어려서는 일제 시대에, 해방 후에는 공산당의 공포 속에 시달리다 6.25 전쟁을 만났다. 그 후 남한으로 내려와 천신만고 끝에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갖게 되자 그 때부터는 가족에 매여 허덕이다 미국에 왔는데 더 고달픈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몸은 늙고 자녀들도 멀리 떠나 외로워지자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나 후회가 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생각이 180도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고 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올 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구절, 그 목적

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돋는 일이라는 구절에 눈이 확 뜨였다고 했다. 맞다. 지금까지 자기는 부모나 처자식, 직장, 교회 및 사회를 위해 살았지 자기를 위해 살지 못했다는 편협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민 1세들은 어느새 나이 80세 전후를 맞이하게 됐다. 몸을 돌보며 건강하게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내가 만난 김OO은 전혀 달랐다. 내일이면 90세다. 그는 일찍이 이북에서 남한으로 이민 왔고, 또 남미로 이민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 와서 현재 큰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다. 그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믿

었던 친구에게 사기도 당하며 사업에 실패해 거지 신세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오늘날의 사장이 된 것이다. 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건강관리다. 음식은 채식과 과일 그리고 무공해 콩과 현미밥을 주로 하되 소식하며 꾸준히 운동을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두 번째는 남들을 섬기는 자세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탁소에 나가 직원들이 오기 전에 점검을 하고 아침식사를 준비해서 전 직원들과 같이 먹고 점심도 역시 자신이 제공한다. 세탁소를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돈 버는 것은 차선이고 첫째는 직원들과 손님들을 왕처럼 섬기는 자세다. 또 간증집회에 가기도하는데, 사례비는 반환한다. 그가 영어의 Retired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타이어를 바꿔 끼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내일 자기가 죽는다 해도 오늘 과일나무를 심어 흙날 누구인가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한다는 철학이다. 하루 하루 그 날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김OO를 닮을 수는 없을까?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떠뜻한 온기가 내게 스며든다.



전장소비자가격: \$184/명

준드로 속습 확인 아세요!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라케어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카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2019 Pearson Education, Inc.

한국 대중 문학작품 시련장

구는 중에 살았는지 구는 표지를 놓구 있는 신비한 기록의 궁금증!!
여거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셋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해소.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갈아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원래.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징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증세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우울증.야뇨증	여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우울증.불면증.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담석.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변비.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증풍마비.당뇨.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원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부터 훈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설(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면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발끝이 나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췌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기적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회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 옴. 미세스 꽈(뉴저지)
모유 아주적음.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가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끊임없이 편안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증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증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증풍으로 인한 마비가 물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앓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어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회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지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원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양센터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
여약국	714,670.7979	뉴욕,뉴저지	201,983,8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예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동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월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밸야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 내셔널약국	213.739.8871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래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로리라(요15:7)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전수와 세계 선교 하나되면”

강신권 목사, 비전 153 운동으로 전세계 복음화 앞장

강신권 목사(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코헨대학교 설립총장)는 전세계 153개 나라 혹은 권역 및 전략적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하라는 비전을 35년 전 받았다. 이렇게 전세계 주요 지역이 복음으로 하나되면 기독교UN을 설립할 꿈도 갖고 있다. 강 목사는 이를 위해 지구 97바퀴 거리를 비행하며 지금까지 362차 세계 선교를 했고 109개 지역에서 선교 기반이 마련됐다. 그는 “365차 선교를 마치면 이제 그 기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송도에 기독교 테마파크인 바이블랜드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미 15만3천평 부지 위에 2조2천7백억원 규모의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는 미주의 비즈포스트를 비롯해 한중미의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선교도 말씀 전수 중심이어야

강신권 목사는 비전153을 “제4 세계 선교학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말씀 전수와 세계 선교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지는 거대한 복음 운동이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히브리식 사고에 기초한 말씀 전수 운동으로 신학은 물론, 목회자들의 설교에도 큰 영향을 미쳐 온 그는 세계 선교도 이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유대인들은 말씀 전수에는 성공했지만 세계 선교에는 실패했고 기독교는 세계 선교에는 열심이지만 말씀 전수에는 취약하다”고 본다. 말씀 전수는 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해석해 주는 것을 넘어선 개념이다.

“우리는 분석하고 조개는 헬라식 사고에 따라 신학을 배웠다. 그러나 히브리식 사고는 붙이는 사고 즉, 통전적·통합적·통섭적 사고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기에 히브리식 사고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후세대에 전수 할 수 있다.”

그가 소개하는 히브리식 말씀 체현은 신 중심, 관계 중심, 직관적 느낌 중심, 동적 사고 중심, 의미 중심이다. 강 목사는 “이런 사고에 근거한 성경 해석법은 에스라 때부터 사도 바울까지 이르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기에 헬라식, 그리스 철학식으로 말씀을 전수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유럽 교회의 몰락,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쇠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말씀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신학이 없다. 우리는 말씀이 삶으로 체현되는 말씀 전수를 해야 한다.”

그는 “우리는 2천년 전 성령 강림을 체험하며 가슴이 뜨거워져 곧바로 선교를 나왔지만 말씀의 전부를 배우진 못했다. 이제 그것을 갖고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아론 제사장 가문의 147대손 계리 코헨 박사와 함께 코헨신학교를 설립해 제사장만이 알고 있는 성경해석의 비밀을 보급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키아즘 성경 해석, 태필린 교육, 학기다 교육 등이다. 강 목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한국 신학계에서는 상당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제4 세계 선교의 시대 도래해

세계 선교도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지어주던 과거의 방식’에서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전도해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핵심에는 현지 기독교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말씀 전수가 있으며 강 목사는 이것은 “사람을 얹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라고 표현했다. 그런 점에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이민자 교회가 아니라 그 땅을 복음화하는 선교사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강 목사는 “말씀을 익힌 우리 2세들이 이제 미국 교회의 담임으로 나가서 미국 교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비전 153 운동이 무엇인가?

153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물고기 153마리에 나온 숫자다. 성 어거스틴은 153은 1부터 17까지를 더한 숫자라고 봤다. 17은 10 더하기 7인데 10은 구약의 십계명, 7은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3과 동서남북의 4를 합친 수라고 해석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결국 153은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상징적 숫자라 할 수 있다.

비전 153 운동은 전세계 오대양 육대주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찾는 선교 운동이다. 유럽 교회는 이미 몰락했고 미국에서도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도 그렇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 운동은 제4 세계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제1 세계 선교는 유대인들

에게 예루살렘처럼 언어, 문화, 지리적 여건이 같은 곳에서 이뤄졌다. 제2 세계 선교는 사마리아처럼 자기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 가는 것이다. 제3 세계 선교는 전세계 빈곤국가의 가난하고 빼앗기고 억눌린 자를 찾아가 선교하던 개념이다.

비전 153은 마가복음 16장 중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 곳에서 선교가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뤄지나?

먼저는 그곳에 선교 센터나 기독교 지도자 양성 기관이 세워진다. 학교나 유치원이 세워지기도 한다.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그 나라 각 분야로 들어가 나라를 변화시킨다. 100만명 지도자를 양성해 50년 뒤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충돌에 대비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7500여 명을 양성해 냈다.

이 운동에 비전을 함께 하며 동참하는 교회와 기관들이 있다. 먼저 세계성경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여러 교회, 교단,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목회자만 약 120명이 되는데 이 중에는 고이 중표 목사를 비롯해 월간목회 발행인 박중구 목사, 서울 홍의교회 손철구 목사, 보배로운교회 류철배 목사, 예심교회 김기남 목사, 뿌리와 가지교회 정관창 목사, 인도네시아의 이회열 박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53개 나라, 권역, 전략적 도시 중 109개가 완료됐는데 이 중 35%는 이미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져 자립한 상황이다.

이제4 세계 선교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운동이 아니고 현지인들이 주인이 되는 운동이다. 우리가 24년 전 선교한 어느 공산권 국가는 벌써 지도자가 1800명이나 배출됐다. 물론 이 나라는 자립했을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됐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도 과도한 사역과 재정적인 압박으로 7번이나 쓰러졌지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법이다. 이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준형 기자



히브리식 말씀 전수 권위자인 강신권 목사가 비전 153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제4 세계 선교에 관해 밝혔다.



세계성경장로교회 임직자들과 임직예배 식순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믿음 위에서 영적 싸움 승리

세계성경장로교회 창립 28주년 맞아 장로 3명 세워

세계성경장로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장로 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 일꾼을 세웠다. 5일 오후 5시 부활주일 교회 본당에서 열린 임직예배는 2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거행됐다.

예배에서는 강신권 담임목사가 사회, 김성전 장로가 대표기도, 흥만애 장로가 성경봉독, 임종혁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서부노회장)가 설교했다. 임 목사는 출17장8-16절을 본문으로 “여호와 낫시”라는 설교에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악한 세상과의 전쟁을 늘 하고 있다”면서 “주의 종이 지치지 않도록 동역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심을 믿고 나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이상명 미주장신대 사가 끝났다.

앞서가는
젊은스타일
살아있는곳

マイスタイルリスト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9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 미용실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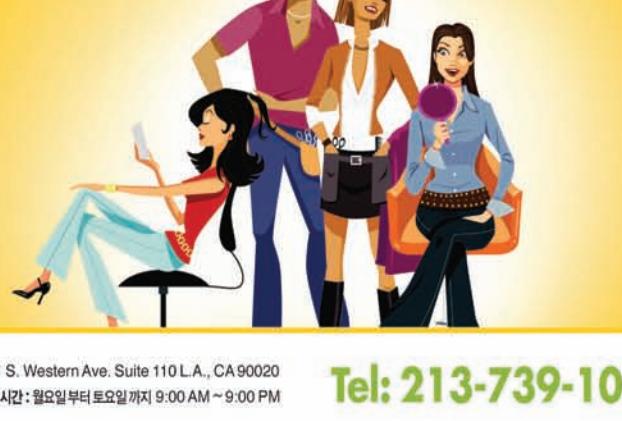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라
\$30 up

* 단, 컬라만 하시면 \$30. 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Tel: 213-739-1022

뉴욕·뉴저지 43개 지역에 울려퍼진 부활의 함성

뉴욕교협·뉴저지교협 주관 2015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일제히 개최



뉴저지소망의교회 담임 정은수 목사가 연합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힘찬 부활의 함성이 5일 새벽 뉴욕과 뉴저지 43개 지역에서 일제히 울려 퍼졌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는 맨하탄에서 시작해 롱아일랜드까지 총 29개 지역에서 예배를 주관했다.

뉴저지교협은 포트리부터 중부뉴저지와 북부뉴저지까지 총 14개 지역에서의 부활절예배를 주관했다.

가스펠교회, 뉴저지그레이스교회, 뉴저지은혜제일교회, 뉴저지행복한교회 등 뉴저지 제2지역에 있는 12개 교회들은 5일 새벽 뉴저지소망의교회(담임 정은수 목사)에서 부활절연합새벽예배를 드렸다.

뉴저지 제 2지역은 교세가 큰 교회가 없어 비록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성가대가 예수님의 고난부터 부활까지의 과정을 담은 칸타타를 준비해 선보이는 등 정성이 돋보였다.

이날 예배는 정은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이어 김명진 목사 성경봉독, 2지역 찬양대 찬양, 이의철 목사 설교, 김희건 목사 봉헌기도, 이병준 목사 광고, 이주남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자 이의철 목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마28:1-10)라는 제목의 부활절 메시지에서 “요즘 기술의 발달

김대원 기자

로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 40년이나 연장되었다”면서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다. 이 놀라운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에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고 말했다.

이의철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철 목사는 “제가 전도사 시절 아버지가 불치병으로 곧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온 가족들이 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아버지가 기도하시던 중 ‘네 병이 나았다’라는 음성을 3번 들게 되었고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 20년을 더 사셨다”면서 “이제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자”고 전했다.

뉴저지교협은 특별히 올해 부활절연합예배 현금은 모두 구제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회장 이병준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더불어 함께 영광 돌리는 교협’이라는 표어 아래 더욱 뉴저지 지역의 교회들의 연합과 선한 사역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맨하탄 중심을 ‘예수 극장’으로 “영적 황무지가 깨어날 것”

뉴욕정원교회, 부활절 새벽 타임스퀘어에서 기도회 가져



뉴욕정원교회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 문학가 확산돼 예수 극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했다.

뉴욕정원교회(담임 주효식 목사)가 부활주일인 5일 새벽 6시, 부활절 새벽예배를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갖고 기도회를 개최했다.

매주 월요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 뉴욕정원교회는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이 집중돼 있는 맨하탄의 중심이 ‘예수 극장’이 될 것을 소원하며 기도했다.

뉴욕정원교회 주효식 목사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모두 ‘돌’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주효식 목사는 경제, 문화의 중심인 맨하탄은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영적으로는 황무지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꽃이 필 것을 기대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종려주일은 ‘돌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은 ‘무덤을 막은 큰 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말씀을 전했다.

주효식 목사는 “예수님을 경배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고 도전해 나갈 때 맨하탄에 영적인 각성이

시작될 것이고 그 때 바로 맨하탄은 예수 극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효식 목사는 “예수님 무덤은 큰 돌로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없으셨고 이미 부활하셨다”면서 “우리가 큰 돌로 막힌 것과 같은 영적 황무지에 있지만 부활의 승리를 믿으며 힘차게 복음을 외치며 전하자”라고 말했다.

뉴욕정원교회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 드린 이후에는 브로드웨이 선상의 극장에서도 거리 찬양과 기도를 가졌다.

뉴욕정원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화려한 예술 문화가 선보이고 있는 이 브로드웨이에도 예수의 바람이 불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술 문화가 확산되고, 극장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

뉴욕정원교회가 위치한 곳은 맨하탄 32가로, 뉴욕의 상징인 앤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불과 50여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맨하탄 중심지이다.

교회가 뉴욕의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이번 타임스퀘어 부활절 새벽예배 등 역동적인 복음전파 활동에 힘쓰고 있다.

김영환 기자

교회 밀션 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예배 오전 6:20

1부예배 오전 7:30 성인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인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창강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회-토 오전 6시

갈릴리선교교회

umblego@gmchurh.com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h.com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9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부 저녁 7: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화)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월-금)
오전 10:30(수)

남가주광염교회

밀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부 주일 오후 2:00

주일예배 오전 9:00 종교동부 예배 주일 오후 9:00 김경렬 담임목사
10:00 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9: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화-금)
교회학교 주일 오후 9: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9:00 종교동부 예배 주일 오후 9:00 김세환 담임목사
10:00 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9: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화-금)
교회학교 주일 오후 9: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한기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부 오전 11:0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나성동산교회

온애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부 오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 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현현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DM 오후 1:00
주일예배부 오후 1:30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서건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DM 오후 1:00
주일예배부 오후 1:30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현실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 428-7878/F. (323) 932-0788/kirinholly@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1:00 전도부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1:00 전도부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1:00 전도부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회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예배(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말) 오후 01:30 성경연구회(주말)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후 11시 (본성전)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 표어 : 산과 물의 빛을 비는 교회(15: 45)
1. 민족을 넘어서 2. 선양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화) 오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회
171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온라인) 오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윤전한 제자로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회
171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준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후 6:0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수, 토)

안병권 담임목사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후 11:30
유년주일학교 오후 11:3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EM)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4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ganachurch.hompee.com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유아동부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후 10: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EM)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1:30
2부예배 오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0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365-9188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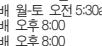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EM)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1:30 새벽예배 월도 오후 5:30am
4부예배(EM) 오전 10:00(장년)
5부예배(EM) 오전 2:00(장년)
6부예배(EM) 오후 3:00(장년)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우부인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전 6:00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밸리체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월-토) 6:00
1951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체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체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급 오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온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삶으로 살기' 교회 (빌1:8)

Tel. (805) 483-7009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el. (805) 483-7009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인 친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www.kjdb.co.kr



한병철 애틀랜타 교회협의회 회장이 2015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죽어서 사는 부활의 삶을 살라”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주최, 2015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애틀랜타교회협의회(회장 한병철 목사)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5일(주일)

새벽 6시 서부지역(마리에타)과 동부

지역(

“어둠을 통과하면 빛이 된다”

유명 프로듀서·찬양 사역자에서 ‘떡볶이 아저씨’가 되기까지

…지금 이 순간일지도/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내 평생 놓을 수 없는/마음 속 깊은 곳부터/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주님께 예배할 때…

우울증을 극복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아시배달부 출신 테너 김승일, 15세에 프랑스 국립대학에 입학한 색소폰 천재 허민, 이 세 사람은 본국 SBS방송국 ‘스타킹(Star King)’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가 되면서 인생이 뒤바뀐 역전의 주인공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가 바로 찬양 사역자 강훈 목사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스타킹 300회 특집이 이 3인이 동시에 출현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방송되기도 했다.

강훈 목사는 실력있는 무명 아티스트들의 재능을 발굴, 음악제작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CCM프로듀서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의 희망이 되어준 음악을 통해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프로듀서 목사이다. 행복 바이러스, 스타킹 프로듀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세인의 중심에 서 있는 그다. 또 순양원 목사 현정 음반의 음악감독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CCM에 랩을 접목시킨 ‘비트CCM’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새로운 CCM 장르를 여는 전환점이 되면서, 실제로 교회를 떠났던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큰 열매를 맺게 했다. 강 목사 자신의 불우한 삶을 그대로 녹여낸 랩과 찬송가 138장의 십자가십자가를 반복하는 후렴구가 방황하던 청소년들의 일어붙은 가슴에 사랑의 훈풍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3-4인조의 힙합그룹인 ‘바이러스(Victory Is Revival In Us; 우리의 회복이 승리)’를 조직하여 교회를 찾아가 청소년들의 잡든 영혼을 깨우는 순회집회를 갖기도 했다. ‘바이러스’라고 명명한 것은 바이러스처럼 빠른 속도로 청소년들 사이에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의 회복이 승리’라는 영문 이니셜을 합성한 것이다.

강훈 목사의 꿈은 평생 문화사역자로 남는 것이었다. 인생 60이 넘으면 찬양사역에 꿈을 둔 젊은 후배들에게 통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었다. 적어도 지난



강훈 목사

해까지만 해도 그것이 개인의 꿈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올 2월 유럽 코스타대회에 다녀온 후 그의 꿈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동안 꿈꿔오던 문화사역자로서의 꿈을 완전히 내려놓게 됐다. 그 계기는 지난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2013년 11월 어느날, 그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평의 어느 고아원으로 위로 공연을 갔을 때의 일이다. 그날, 그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고아들, 원래부터 고아였던 아이들이 아닌, 부모들의 이혼으로 버려진 소위 ‘이혼 고아’들을 보게 된 것이다. 국내 청소년 범죄의 70%도 바로 이 아이들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혼 고아’들은 성년이 되어 고아원을 떠날 때 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정착금도 지원받지 못한 채 사회로 떠밀려 나와야 한다고 했다. 본의 아니게 제 2의 가출청소년이 되고, 1-2주 베티다 결국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 생존을 위해서.

강훈 목사는 이 아이들을 보며, 그때서야 왜 자기가 어린 시절 고아원에 맡겨져 그 아픔을 몸소 겪어야만 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 그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그는 10년 동안 프로듀서를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아픈 과거의 일기장을 들고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음악에 재능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간접적으로는 음악이 아닌 다른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도 길을 열어 주고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때마침, 집회를 통해

감동받은 다양한 분야 종사들의 도움의 손길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고아원 안이 아니라 고아원 밖으로 떠밀려 나가 어쩔 수 없이 가출청소년들이 돼 버린 아이들을 찾아내 그들을 자립시키는 일이었다. 묘안을 생각하던 강 목사는 자신의 달란트 중의 하나인 요리솜씨를 발휘하기로 했다. 거리에서 굽주리며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한끼 식사라도 제공할 요량으로 ‘푸드트럭’을 마련하여 떡볶기를 만들어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 첫 섬김은 개봉동 입구 육교 밑에서 시작됐다. 등교 사역자와 프로듀서로 활동할 때 알게 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찾아와 격려와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끼니를 굽어가며 길거리를 방황하던 아이들이 입소문을 타고 꾸역꾸역 찾아와 떡볶기 한 접시이지만 한끼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됐다. 물론, 무료로 제공됐다.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주변의 세상 인심은 점점 더 박해지고 결국 ‘푸드트럭’을 접어야 했다. 당장은 끼니를 거를 아이들을 생각해 마음이 아팠지만 더 큰 꿈을 꾸기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푸드트럭’이 아닌 떡볶기가 가게를 차리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와서 마음대로 쉬고 끼니를 떠울 수 있는 가게를 차려 자리를 잡고, 그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운영할 만한 아이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자신은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가게를 마련하여 또다시 다른 아이들에게 넘겨 주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그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강 목사가 이 곳 한인교회를 찾아 온 이유 중 하나도 그 꿈을 실현하고픈 마음이 간절해서이다.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가정예배만은 거르지 않고 남매를 이끌어 준 할머니의 신앙유산은 평생 강 목사의 삶을 지탱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강 목사에게는 ‘개척 떡볶이 가게’가 ‘개척 교회’이다. 전국 곳곳에 ‘개척 떡볶이 가게’가 들어날수록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자립한 젊은 청년들은 점점 늘어나는 ‘건강한 사회’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것이 선교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강 목사는 오늘도 그 꿈을 향해 ‘떡볶이 아저씨’로 불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다.

이영인 기자

“가정폭력의 위기, 교회의 역할”

5월 4일 제 3회 한인목회자 컨퍼런스 열린다



‘한인목회자 컨퍼런스’ 개최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그 의의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카니 정 조(한인가정상담소 소장), 고태형 목사(종교자문위원회 위원·선한목자장로교회), 서철원(한인가정상담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박세현 목사(종교자문위원회 위원·예수로교회), 이시연 박사(칼스데일 엘에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맨 원쪽으로부터)

오는 5월 4일(월)에 열릴,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 주최, 제3회 한인목회자 컨퍼런스’ 개최 설명회가 7일(화) 오전 11시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열렸다.

이번 개최는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3회째이며, 지난 해부터는 블루쉴드 재단의 후원으로 시작된 ‘협력하는 교회와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가정폭력의 위기, 교회의 역할’로, 한인 목회자, 부교역자, 가정 사역자, 사모, 신학생,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관심있는 평신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상담소 서철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해부터 블루쉴드 재단의 후원과 함께 결성된 종교자문위원회(Korean Faith Advisory Council)가 준비위원회로 돋고, 지역 단체 및 교회, 신학교육기관, 이 분야 전문가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준비한 컨퍼런스로, 보다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프로그램 구성의 특징이 있다. 또한, 주 강사로 참여하게 될 손인식 목사(KCC 대표)가 직접 종교자문위원회를 열어 그에 기초한 커리큘럼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과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한인 이민 가정을 다시 세우기에 힘쓰는 목회자들 및 관심있는 교회 리더십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고태형 목사는 “가정폭력의 문제는 가정의 수치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권면하기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 만큼 노하우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이 컨퍼런스는 목회자에게 부족한 실제이고도 전문적인 노하우를 접

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세현 목사는 “이 컨퍼런스 개최는 ‘가정폭력’이 아닌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회는 예배, 전도, 봉사, 구제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가정 세우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작은 미자립교회의 경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여부족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 받기를 바란다”며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시연 박사는 “미국 전역의 현직 담임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리서치(Life Way Research, 2014)에서 72%가 미국내 자신들의 교회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가정폭력이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2010년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조사에서도 미국내 여성 4명 중 1명(24.3%), 남성 7명 중 1명(13.8%)이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한다고 했다. 또 한인 가정의 경우, 60%-75%가 가정폭력을 한번쯤은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있다. 그리고 한인커뮤니티의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교회이다”며 가정폭력 예방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의 주 강사인 손인식 목사 외에도 전현직 목회진으로 구성된 목회자 패널, 법률자문 패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일시: 5월 4일(월) 오전 9시-오후 2시/장소: LA가든스위트호텔(681 S. Western Ave., LA, CA90005)/참가비: 무료/문의 및 예약: 김아림(213-235-4848/ 이메일: akim@kfamla.org)

이영인 기자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모든 법적 문제의 만족한 결과는 정확한 상황 분별과
의뢰인의 필요를 이해하는데서 시작합니다.
법적인 모든 문제,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마동환변호사그룹

상법 / 이민법
일반민사 / 상해 / 교통사고
가정법 / 뱅크립시 / 소송전문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LA 본사
213.487.9190 fax. 213.487.9484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팍 / 플리튼 / 세리토스 지점
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마동환변호사그룹
Catalina Ave N Wishire Blvd Berendo Ave N Artesia Blvd Marquadt Ave Valley View Ave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언 16:3) ”

마동환변호사

amgreensolutions.com

앰그린의 '닥터 솔라'가 전기값 95%, 물값 30%를 한번에 줄여 드립니다!



솔라 시스템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앰그린- 닥터 솔라

솔라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www.ladwp.com

Electric Amount Due **\$537.72**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3054 KWH \$537.72
	Water Charges	3/4/14 - 5/5/14	66 HCF \$322.98
Total LADWP Charges \$ 860.70			

Water Amount Due **\$322.98**

Electric Amount Due **\$23.38**

Power Charges			
15	152 KWH	\$23.38	
15	45 HCF	\$215.69	
Total LADWP Charges \$ 239.07			

Water Amount Due **\$215.69**



California Lic# 947489

초기 설치비용 무료! (개인 Credit Scor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솔라시스템- 앰그린

- 업체 유일, 30% 물절약 시스템 함께 무료 제공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절수형 토일렛, 스프링쿨러 노즐 무료교체.

- 최고의 파이낸싱 프로그램 제공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견적,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드립니다.

- Made in USA 제품만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

솔라패널과 인버터 모두 25년의 워런티 제공.

- LA CITY 선정 2년 연속, 에너지 절약 최우수업체

인정받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공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주 7일 무료상담: 1.844.900.1004

1367 Venice Blvd, LA, CA 90006 / sunny@amgreensolutions.co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AmGREEN

솔라 세일즈 컨설턴트 모집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중)

(지난 호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길로 평안한 길로 걸어가지 말고 “십자가와 고난”的 길로 걸어가라고 당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16:24,25).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10:37-39).

“십자가와 고난”的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는 길이라고 설명하셨다.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과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과 자기가 귀중히 여기던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만 따르는 순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와 고난”的 길은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펑박을 받는 길인데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펑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펑박하였느니라”(마5:11,12).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고난”的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했다.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행5:40,41).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말로는 십자가를 예찬하면서도 실제로는 싫어하며 거부한다고 생각한다. 고난과 멸시를 받기보다는 평안과 높임을 받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에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분노와 증오와 저주의 마음을 품고 손아낸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들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감성적으로는 십자가를 예찬하고, 유장하게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머리로는 십자가를 예찬하면서도 실제로는 “십자가와 고난”的 길로 걸어가기를 싫어하며 피해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우

리들은 고난과 고난도 멸시와 천대도 펑박과 죽음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며 피하려고 한다.

사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처음에는 “십자가와 고난”的 길을 싫어하며 거부했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와 고난”的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마26:56).

그러나 십자가를 버리지도 떠나지고 않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아래 머물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은혜를 온 몸으로 흡뻑 받고 또 받은 축복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평생 울면서 사랑을 쏟으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다고 생각한다. 배신의 길을 거듭해서 걸어가던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도 나중에는 디베라 바다가로 자기들을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곱 마디 사랑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었고 결국 가난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펑



김명혁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과 펑박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길로 걸어갔다. 결국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와 저주를 받으며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가슴과 입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악독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와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대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생생한 증언만을 쏟아내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

모습을 거의 그대로 나타내 보였다 고 생각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셨다고 생각한다. 스데반 집사가 “십자가와 고난”的 길로 걸어가면서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펑박자 사울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스데반 집사의 간절한 사죄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올바로 지적하셨다.

또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일로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세계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십자가와 고난”的 길은 참으로 놀라운 길이다. 수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과 구원이 임하는 축복의 길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고난”的 길을 이어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갈6:14).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6:14).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고난”的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수고와 위험을 당했다고 길게 나열하기도 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3-27).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니게 되었고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고후 4:10).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6:17).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펑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고백했다(고후12:1).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롬5:3).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자기 몸에 채우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었고 고난을 기뻐하고 사모하면서 추구한 “고행주의자”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가난과 고난과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추구했던 성 프랜시스와 중세 수도원주의를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가난과 고난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펑박과 곤란과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사모했던 “고행주의의 원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 자기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와 고난”的 길로 걸어간 “십자가와 고난”的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십자가와 고난”的 길 때문에 로마 시대에 살던 수 많은 악독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계속〉

죄사함과 축복의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길

고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7:55,56).

우리 죄인들이 부족하지만 “십자가와 고난”的 길로 걸어가면서 매일 울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한다.

그리고 동료와 후배들에게 이런 권면까지 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옥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4:12-14,16).

“십자가와 고난”的 길은 우리들이 피해야 할 길이 아니고 기뻐하고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십자가와 고난”的 길을 걸어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서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고난”的 길을 제일 먼저 걸어간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고 생각한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세상의 유익 하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고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리”(고전2:1,2).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인 가문이나 학문이나 종교적인 열심 등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며 버린다고 고백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3:7-9).

사도 바울은 또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2:10). “그리스도로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
1장

복사기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i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박태언 | 레베카 | 2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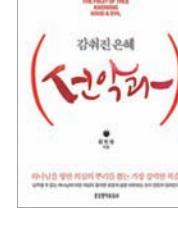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는 성경' 사무엘상 설교집이다. 커다란 시련을 겪었음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연 세 사람 사무엘, 사울,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 운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오늘 닥쳐오는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낸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눈물 없는 성공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감춰진 은혜 선악과

김민정 | 생명의말씀사 | 112쪽

잊을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을 '선악과'라는 뿌리로 거슬러 올라갔던 저자의 짧은 이야기. 그러면 어느 날 선악과를 깊이 묵상했고, 하나님을 향한 정체 모를 의심의 깃덩어리가 바로 선악과의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임을 깨닫게 됐다. 그 때 찾은 답을 '선악과의 은혜'라 표현하는 저자는, 이전보다 훨씬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고백한다.



어머니 세움

박미숙 | 생각을담는집 | 232쪽

자녀를 키우는 기독교 가정 '믿음의 어머니'들과 기도로 자녀를 키우길 원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안내서다. 선교사로 활동하다 목회자 사모가 돼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저자는 "지금보다 더 거친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어머니야말로 선교사"라고 말한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자녀의 미래 앞에서, 거룩한 이름 '어머니'로 함께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내 자녀에게 성을 이야기할 때

스tan 존스, 브레나 존스 | 소원나무 | 340쪽

자녀가 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당황할 것이다. 성에 대해 자녀에게 어떻게, 언제 이야기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상황을 회피하거나 애둘러 표현하는데,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성에 대해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녀가 또래집단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REVIEW

"허기진 신앙생활을 채울 하나님 나라의 풍미를 맛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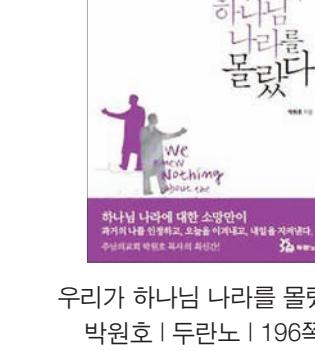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지켜낸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회의 근본이며, 믿음의 중심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인생고락을 위한 신앙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 같은 한국 교회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한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내일을 전망하기 어려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

한 줄타기처럼 불안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다.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의 삶,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인생고락을 위한 신앙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 같은 한국 교회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한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내일을 전망하기 어려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박원호 | 두란노 | 196쪽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오랜 시간 신학교 교수로 하나님 나라를 가

르치고 전해 온 그의 뜨거운 소명에 기인하고 있다. 안일한 이상이나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애써 온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비교적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도록 쉽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나도 몰랐던 내 안의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

라에 입국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완성됨을 깨닫게 해준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드라마로도 보고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십자가의 초대장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신분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팔복 매뉴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심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책은 당근만을 바라던 우리의 나태한 신앙에 일침을 가하며, 수면 중인 영혼을 흔들어 깨워 줄 한줄기 신선한 생명바람이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전화 1-877-580-2424 샌디에(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최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이커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해외이사

C. S. 루이스, 기독교의 본질을 ‘친절하게’ 안내하다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하고도 지성적인 필치로 변론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아일랜드의 안락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좋은 부모님, 좋은 음식, 그리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정원’이라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으로 요약했다.

루이스는 글을 쓰도록 자신을 물고 간 것이 손으로 하는 일에 무척 서툴렀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는 단 하나의 관절만 갖고 있는 엄지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유전된 것으로, 그의 형도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무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많은 눈물 속에서 마분지와 가위를 가지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발견했다. 바로 펜을 붙잡는 일 이었다. 그가 이야기를 끊시 좋아한 것도 스스로 이야기를 쓰도록 이끌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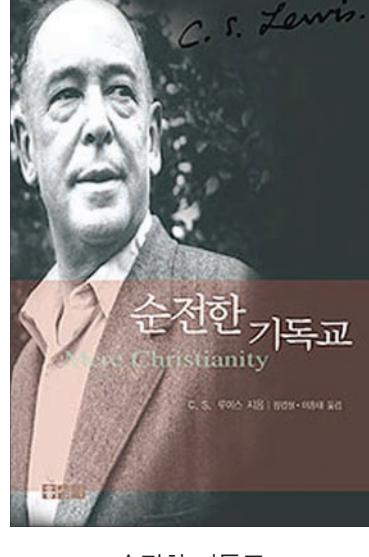
루이스는 거의 평생을 ‘대학 도시’인 옥스퍼드에서 보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가장 잘하는 교수였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다.

특히 ‘잉글링스(INKLINGS)’라는 서클은 문학계와 종교계에서 상당히 유명했다. C. S. 루이스와 〈반지의 제왕〉 작가 J. R. 털킨은 절친한 친구이자 옥스퍼드 중심에 사는 작가들의 모임인 잉글링스의 회원이었다.

루이스와 털킨은 이 잉글링스 모임에서 신화와 서사시를 비롯하여 사회 문화에 관해 토론하며 생각을 공유했다. 그리고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글을 쓴 다음, 서로 돌려 읽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완성도를 높였다.

그는 신앙에 입문하면서 요한복음을 처음에 그리스어로 읽었다. 그 후 성경 읽기를 평생의 습관으로 삼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씩이라도 읽어 나갔다.

루이스는 기도할 때, 특히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성경을 읽으



순전한 기독교
C. S. 루이스 | 홍성사 | 349쪽

며 묵상에 잠겼다.

루이스는 1940년대 말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1주일에 평균 100통이 넘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는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영적인 조언자였다.

그의 책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신뢰받으며 읽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따뜻하고 진실한 루이스의 신앙심이 그의 책들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비기독교인들도 거부감 없이 읽어갈 수 있는 글을 써낸, 몇 안 되는 기독교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순전한 기독교〉는 원래 루이스가 1941년부터 1944년 사이 네 번에 걸쳐 영국방송공사(BBC)에서 시리즈로 행한 방송 연설의 내용을 1952년에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루이스는 “우주의 배후에 과연 누가(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그는 유물론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이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어느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느냐’이다. 유감스럽게도 과학은 이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루이스는 이 궁극적 실제(하나님)의 개념과 관련하여 먼저 무신론을 고려 대상에서 제거한다. 이어 그는

변신론과 이원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제한다. 남은 것은 결국 기독교 신관뿐이 됐다.

그는 악의 문제를 다룬 후, 이 세상의 악에 대한 기독교의 답을 제시한다. 물론 악과 고난이라는 주제는 그리 만만한 상태가 아니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가 하나님의 근본적 해결책이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말한다.

C. S. 루이스에 따르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고백과 함께 일어서거나 넘어진다.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에 중립이나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고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C. S. 루이스는 회심한 이후,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 온 비를 설명하고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최상의 봉사’라고 생각했다.

비록 이 책이 가벼운 책이 아니요 다소 문화적 캡이 느껴지는 저술이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독교 변증서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하고도 지성적인 필치로 변론한, 가장 뛰어난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많은 회의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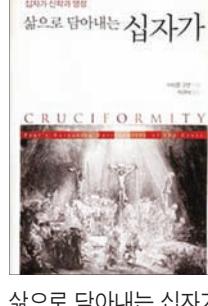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책은 칠밀한 논리와 풍부한 상상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평가된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십자가를 본받아, 부활을 살아내라”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マイケル・コーン
새물결풀러스 | 680쪽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독특한 단어 ‘cruciformity’로 불렸다.

‘cru-
ciform’(십자
가의, 십자
가 형상을
지 낸)’과

‘conformity(본받음, 따름)’의 합성 어로, 원제는 ‘십자가를 본받음 또는 본받는 삶(crucifix+formity)’이 된다.

저자는 바울 신학과 윤리학의 중심 개념이라 믿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conformity to the crucified Christ)’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바울의 십자가 영성’이라 바꿔도 무방하다.

이러한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저자가 바울 신앙의 핵심을 ‘이신칭의’도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아닌, ‘십자가를 본받는 것’이라고 책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책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밝혀내는데 집

중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야기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일상의 삶을 역동적으로 일치시켜 가는 것임을 역설한다.

이 책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체험을 첫 네 장에서 분석하고, 바울이 편지에 적었던 십자가 관련 말씀들을 열거하고 의미를 찾은 후, 그의 십자가 체험을 믿음과 사랑, 능력과 소망, 그리고 교회 공동체 측면에서 꼼꼼히 살피고 있다.

저자는 바울의 십자가 영성이 그 시대의 종교 현상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현상에도 도전을 던진 것이고, 그가 쓴 서신의 수신자인 공동체 내부에서 ‘다른 영성’을 주장하며 십자가를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다르게 이해하던 이들에게도 도전을 던진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날 속죄나 폭력, 자기희생 등 ‘십자가를 본받는 삶’에 대한 (주로) 신학적 도전들에 대해 응답하고,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포괄적이고 상상력을 요구하며, 카리스마 영성으로 선지자의 영성이며, 공동체 영성으로 자녀 티브 영성이며, 무엇보다 값진 영성이라고 주장한다.

이수민 기자

십자가와 함께하는 십자가 영성

일상, 부활을 살다



일상, 부활을 살다
유진 피터슨
복있는 사람 | 160쪽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활이란 어떤 목적에 이용하거나, 통제하거나, 주무르거나,

개선해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부활이라는 중심을 회복하고 이 부활의 터전에서 자라나는 영성 형성의 전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책 전체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

도 ‘영성 형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에 빼앗긴 ‘경이와 신비’, ‘초월과 다름’의 체험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지나치게 비밀스럽거나 황홀하며 로맨틱한 것으로 만들려 해서도 안 된다. 저자는 이 논거를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과 가장 ‘일상적인 장소’인 식사 자리에서 두 차례나(눅 24장, 요 21장) 함께 하셨다는 데서 찾고 있다. 그리고 부활의 실천은 ‘스페셜 리스트’들이 아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친구들’로서 해 나가야 함을 마지막으로 지적한다. 기독교 영성이란 애초부터 ‘부활에 뿌리 박은 영성’이고, 저자의 일관된 관심도 우리의 일상과 평범함을 조건으로 포괄적 의미의 기독교적 삶을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부록으로 저자가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 부활 이야기(마 28장, 농 24장, 요 20-21장)가 들어 있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접수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을질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쇠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킥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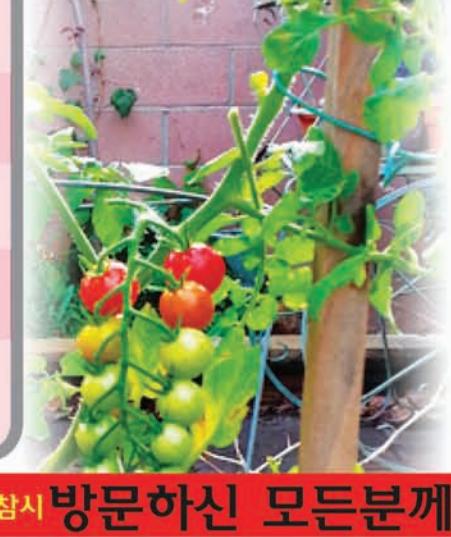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 순환이 달라짐(통증 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빌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베팀복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킥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팀복(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킥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베팀복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가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솔모기박사는 이연이 균형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비타민과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심이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연이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제(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개월간 프로제(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률(CS/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uzusa.com / prouzusa@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ONERSUM



컬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컬러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야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쉽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Charg Racking Gondolas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쉽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주일은 쉽니다.

티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TOGO & 캐더링 환영 머글래 싸갈래

연말연시 동성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도시락

요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Wester Hobart

Beverly Blvd.

주일은 쉽니다.

티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주일은 쉽니다.

티운내 신속

National Day of Prayer to Take Place on May 7 in Washington, D.C.

Jack Graham Appointed as Honorary Chairman

The annual National Day of Prayer will be taking place on May 7 at the Cannon House Office Building on Capitol Hill, with Dr. Jack Graham, the lead pastor of Prestonwood Baptist Church, as the Honorary Chairman. Korean Christian leaders are also expected to personally attend the event in D.C.

The National Day of Prayer began in 1952 with a joint resolution of the Congress, and was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Harry Truman, and a law signed by President Ronald Reagan in 1988 designated the first Thursday of May each year as the day in which the event would take place.

"The observance of the National Day of Prayer is found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religion, and can be celebrated by all Americans," the organizers said.

The theme for this year's event is, "Lord, Hear Our Cry," based on 1 Kings 8:28, in which King Solomon prays, "Hear the cry and the prayer that your servant is praying in your presence this day."

"Kingdoms and nations throughout all history have risen and fallen on prayer," Graham said in a video statement. "The reason is seen in Psalm 103:19, which proclaims, God's kingdom is the one kingdom, the one and only kingdom that rules over all others. And amazingly, prayer connects us, gives us a welcome audience, with Almighty God—the one true God who reigns over every ruler,

every authority and nation."

"Prayer enables us to actually connect with God and takes us into the presence of Jesus our Lord," Graham continued.

The National Day of Prayer is expected to feature a proclamation from President Obama, as the President so does at each year's event.

"I invite the citizens of our Nation to give thank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faiths and consciences, for our many freedoms and blessings, and I join all people of faith in asking for God's continued guidance, mercy, and protection as we seek a more just world," President Obama stated in last year's proclamation.

In addition, leaders from the armed forces and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re expected to be present. Christian leaders will also be leading prayer topics interceding on behalf of the nation on various areas, including education and family.

Graham is known for his time as the two-term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as well as his work with PowerPoint Ministries. Previous Honorary Chairmen for the event include Anne Graham Lotz, daughter of Billy Graham and founder of Angel Ministries; and Greg Laurie, leader of the Harvest Crusades.

The event will take place from 9 AM to 12 PM EST, and can be streamed online at <http://nationaldayofprayer.org/national-obser-vance/>.



Some 250 Korean Americans from different churches in the Southern California area gathered together in corporate worship.

"Breathe in the Holy Spirit, and Rise"

Korean American Churches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 Risen Savior

BY RACHAEL LEE

Some 250 Korean Americans from various churches gathered at Community Church at Holliston, located in Pasadena, CA, at 6 AM on Easter Sunday for the Easter Daybreak Service hosted by NextGen Pastors' Fellowship, a network of Korean American pastors in Southern California. Some of the churches represented include Hillside LA,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New Life Vision Church (NLVC), Community Church at Holliston (CCH), and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YNCC).

This year's service is the second such service hosted by NextGen. For many years, the Easter Daybreak Service was hosted by another gathering of Korean American pastors called the Korean American Pastors' Network until the task was eventually passed on to NextGen beginning in 2014. One of the largest Easter daybreak services had some 400 people in attendance.

"One of the aspects of these gatherings that is so special is that

all of us are coming together from different denominations," said Pastor Sam Park, who leads CCH and who also preached at this year's service.

Park spoke on John 20:19-22, a passage in which, after Jesus had already resurrected, disciples were gathered together at a home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appears to them and says, "Peace be with you," and then breathes on them and says, "Receive the Holy Spirit."

"If the disciples had remained in that room, huddled in fear, and had never told others about the gospel, Jesus' resurrection would simply have remained an object of speculation and mystery," Park said. Park posed that perhaps this portrayal of fear is an accurate picture of many of Jesus' disciples today. But in that moment of fear, Park said, Jesus exhorts his disciples to "receive the Holy Spirit."

"The empowerment of the Holy Spirit is for the purpose of bearing witness to Jesus and his resurrec-

tion," Park said.

"Breathe in the Holy Spirit, and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he continued. "Breathe in the Holy Spirit, and testify to His resurrection. Breathe in the Holy Spirit, and rise."

Other speakers include Pastor Michael Lee, the senior pastor of YNCC, who led corporate prayer; and Pastor Kiwon Suh,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of NLVC, who gave the benediction. Undignified Tour, a worship band stemming from the campus ministry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led worship.

NextGen, which began in 2011, has been hosting several gatherings each year for Korean American pastors in Southern California. Some of the recent events it hosted include "Love the City," a panel regarding loving the city of Los Angeles, and "Rites of Passage," during which first and second generation pastors were able to come together toward deeper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I: The Key to a Healthy Pastoral Relationship between 'KM' and 'EM' is Discipleship

BY RACHAEL LEE



Pastor Timothy Yoo (left) and Reverend John Kim (right) shared that discipleship was key to their relationship of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Reverend John Kim, the senior pastor of World Agape Mission Church, and Pastor Timothy Yoo,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ministry (EM) of WAMC, shared their stories of the Korean and English ministries of WAMC, and the journey that it took to build WAMC to be the church it is today. WAMC is a Korean immigrant church located in Los Angeles, and the English ministry consists of some 100 members.

Currently, 80-90% of the students in EM choose to stay near Los Angeles for college instead of going out of state because they want to stay at WAMC and continue to serve, Yoo said. 85-90% of the EM members regularly tithe, and many of them attend early dawn prayer with the Korean ministry (KM).

"At one side you hear people screaming, 주여!, and on another side you hear, Jesus! We're praying in different languages but we're all praying together with one heart," Yoo said.

What is the secret to the health of this church and the dedication of its members?

According to Yoo and Kim, it's discipleship.

WAMC was actually first started with discipleship. Kim started the church 38 years ago with 500 youth and young adults, and discipled them. During a time in which

other churches did not have youth ministries, Kim decided to invest wholly and solely in the younger generation.

As they "shared life together," these young people grew in their knowledge and love for the Lord, and some committed to serving as full time ministers at WAMC, one of whom was Yoo.

When asked what exactly "sharing life together" meant for them, they said, laughing. "We lived together."

Kim built a dormitory for his 10 disciples and himself to live in, and together they ate, talked, laughed, cleaned, prayed, and shared everything together. When Kim had events to attend, he would ask Yoo to drive him there.

"I was pretty much his chauffeur," Yoo said with a smile, joking. "But it was because I drove him to these places that I was able to observe how he does ministry and how passionate he is."

Both pastors agreed in saying that the key to creating a church atmosphere in which the KM pastors and EM pastors can work together and build each other up is discipleship. As Kim lived with his disciples and invested in them wholeheartedly, his disciples, in turn, were able to learn his heart and develop their own passion for the church. Then, as Yoo committed to lead the EM, there was

no room for tension or clashes in opinion between Yoo and Kim, because at that point, the two already shared the same mindset about how to do ministry.

"I don't consider any of my pastors as 'inferiors.' They are my partners, and our boss is God," Kim said.

If olde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had oppositions about how some younger pastors were leading ministry, Kim said that he would try to shield them from these oppositions.

"I try to help the 1st generation Korean members of our congregation to understand that 2nd and 3rd generation members just learn and interact differently," he explained.

When asked how Yoo goes about discipling and mentoring the younger men in the church, he said his discipleship training consists of 6 meetings per week. But, Yoo said, most of his disciples come an hour or two early, and stay a little later after meetings as well. So, in total, he said they spend about 20 hours per week together, sharing life in that way.

When confronted with the argument that a language barrier might hinder relationships between KM and EM, Kim responded, "I think that if someone is loved, they will know it."

Both Kim and Yoo exhorted the church leadership to invest in and love on the younger generation. There is no quick-fix or easy solution to building faithful leaders in the church, they said. But through loving discipleship and long-term investment, God can use current KM leaders to raise up passionate disciples and future leaders of EM to partner in building His kingdom together.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The Korean Church Community in Atlanta Share God's Love Over Easter Weekend

BY ANDERSON KIM

The Korean church community in Atlanta has been spreading the meaning of Easter through its service in the community. Organizations led by or partnered with Korean churches have led various service projects over the weekend, by serving those experiencing homelessness in various ways, including giving gifts, planting flowers, music performances, and worship services.

The organization that kicked off the series of community service events was Yesana Mission, a Korean community outreach organization in Atlanta. Yesana began its project on Saturday, during which they visited the shelter on Peachtree Street. Yesana hosted a time of music, food, and worship with those in the shelter.

As Hope Johns Creek Orchestra performed, Yesana members gave the attendees brown bags containing decorated eggs, sandwiches, fruits, cookies, chips, and water. A loud applause followed the orchestra's performance.

On Easter Sunday, Yesana Mission also visited My Sister's House, a bed facility in Atlanta that provides overnight shelter and residential discipleship programs for homeless women and women with children, and provided dinner for those at the facility.

Stepping Stone Mission, a Korean organization that serves the homeless community, hosted its sixth annual Easter Sunday community event for the homeless, during which 600 individuals experiencing homelessness gathered and participated in corporate worship at Hurt Park in Atlanta. Stepping Stone also provided gifts, barbecuing services, health checkups, gardening services in the park, among other services.

In the gift-giving event, bags with necessities for the homeless—t-shirts, socks, underwear, razors, toothpaste, toothbrushes, chips, canned food, and transportation cards, were given to those who were present. The gifts were brought together by the service and offering of various churches and individuals.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provided food and fruits for the attendees.

An attendee who called himself Jimmy Wallace expressed thanks for the Koreans who have been serving them during this season.

"I'm a Vietnam War veteran, but now I'm living in homeless shelters," Wallace said. "I heard about this event happening at this shelter, and I'm really glad I came. I really feel that the Koreans' hearts are so warm."

Taking Steps of Faith Forward...

Christianity Daily, an English off-shoot of *기독일보 (Gidok Ilbo)*, began as an Internet-only publication in January 2014. About one year and three months later, we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of faith and begin a journey in print publication.

We thank all of you who have supported us thus far by visiting our website and reading our content, and we humbly ask that you would keep us in your prayers. It

was by God's grace that we have been able to grow over the past year, and it will continue to be His grace that sustains us. We're excited to witness how God will continue to move in this generation. May His will be done, and His kingdom come.

If you have any tips, questions, or comments regarding the newspaper, please feel free to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FIRE

C R U S A D E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지쳤다. 우리는 성령님을 원한다” 토미테니

**부모/자녀/그리고/청년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것이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Speaker
김기동 목사



기도 인도
정기정 목사



Praise
FIRE CRUSADE



Worship
갓스이미지 GIM

<< 집회 참석자들의 간증들 >>

“이민 생활 25년만에 이런 집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들어 설 때 이미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제 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황하던 청년이 교회의 일군이 되었습니다”

“30년 모태신앙의 끝자락... 저는 오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2015. 4. 25. 7PM

UNITED GENERATIONS CONFERENCE

나침반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Facebook.com/Firecrusade